

#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고분과 불교미술에서 본 발해 벽화고분

Parhae Mural Tombs in the context of the East Asian and Central Asian funerary and Buddhist arts

박아림(Ahrim PARK, 숙명여자대학교)

## 목 차

I. 머리말

II. 발해 고분벽화의 인물화의 구성

III. 발해 고분벽화의 장식문양의 특징 비교

IV. 맺음말

### I. 머리말

발해의 고분벽화는 발견된 수가 많지는 않으나 고구려를 이어 벽화고분을 제작하여 7-8세기 한국 고대회화사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으며, 고구려 고분문화의 계승과 고려, 조선 고분벽화로의 발전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발해의 고분벽화는 고구려 벽화와 동시기의 중국의 당나라 벽화와 비교하여 계승성과 동시대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해 고분벽화만의 독자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어 흥미롭다. 고분벽화와 화상석의 구성에서는 각 시대별 특징이 나타나는데 발해 고분벽화가 고구려와 당 고분벽화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구조면에서는 묘탑장의 형식을 갖고 있고, 벽화의 구성면에서는 공주의 묘에 남성으로만 구성된 인물입상을 배치한 점은 독특한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고구려와 중국 당나라 시대의 벽화고분과의 비교를 기반으로 하면서 발해 고분벽화가 가진 차이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가져온 배경 내지는 또 다른 대외적 교류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발해 정효공주묘와 삼릉둔2호묘의 벽화의 구성을 당나라의 벽화고분의 가옥형 석곽의 선각 인물화의 구성과 신강과 감숙 지역을 중심으로 당과 위구르 시대 불교석굴 벽화, 몽골에서 발견된 돌궐(또는 철륵)과 위구르(회흘) 고분벽화와 제사유적의 인물상과 비교하여 발해 고분벽화의 특징의 형성에 있어서 배경이 된 대외적인 연관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발해의 대외교통로 가운데 중앙아시아와의 연결을 보여주는 선행연구에 주목하여 발해의 벽화고분에 보이는 독특한 특징이 초원로나 중앙아시아, 중국의 신강 감숙지역, 몽골지역 등과 교류하면서 공유한 북방기류의 결과는 아닌지 살펴본다.

## Ⅱ. 발해 고분벽화의 인물화의 구성

한국의 고분벽화사에서 고구려는 120기가 넘는 벽화고분을 축조하여 가장 많은 수의 벽화고분이 있다. 한편 고구려와 동시기인 신라나 백제에서는 벽화고분이 드물게 남아있으며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역시 벽화고분의 수가 많지 않다. 현재까지 발견된 발해의 벽화는 상경성의 유적에서 발견된 벽화 잔편이 있어 궁궐에서도 건물 안에 벽화를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실제 건물이 남은 사례가 없어 전모를 알기 어렵다. 고분 안을 벽화로 장식한 사례는 유명한 정효공주묘와 삼릉둔(三陵屯) 2호묘가 있다. 이 두 고분을 제외하고 하남촌 부부합장묘, 용해구역 M10호묘 등에서도 벽화 잔편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벽화의 주제나 구성을 알기 어렵다.

정효공주묘는 길림성 화룡현 용수공사향 용해대대촌 용두산에서 1980년 10월부터 1981년 6월까지 연변박물관과 조선족자치주문물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발굴되었다. 장방형의 묘실의 남북길이는 3.1m, 동서너비는 2.1m이며 묘실 바닥에서 지상까지는 약 3.4m이다.

연도의 좌우 벽에 무사(武士)가 1명씩 그려졌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 칼을 왼쪽에 차고 오른손에 철퇴를 잡아 어깨에 댔다.

묘실의 동벽과 서벽은 각 시위(侍衛) 1인이 가장 바깥쪽에 서고 그 뒤로 서벽은 악사(樂士) 3인, 동벽은 내시(內侍) 3인이 서있다. 북벽에는 시종(侍從) 2명이 서벽을 향해 서있다. 고분미술에서 흔히 표현되는 묘실 내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동벽과 서벽의 인물들은 모두 묘실 밖을 향하고 있다.

묘실 동서벽에서 첫번째 인물인 시위는 갈색 단령포(團領袍)를 입고 검은 가죽신을 신었다. 허리에는 검과 활통을 차고 어깨에는 철퇴를 메고 있다.

3명의 내시와 악사는 복두(복頭)에 단령포를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악사와 내시의 구분은 그들이 들고 있는 지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내시는 동경(銅鏡), 흰색 또는 붉은색 붓짐을 들고 있다. 악사와 내시의 옷 색은 순서에 따라 동서벽에 대칭으로서 인물이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있는데 첫번째는 붉은색, 두번째는 푸른색, 세번째는 흰색이다.

내시와 악사는 얼굴에 흰 분을 바르고 입술을 붉게 칠하여 남장한 여성으로 보기도 하나 중국의 벽화고분에도 남성이 화장을 한 사례가 있어 화장을 했다고 해서 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묘실 문쪽에서 보면 첫번째 악사는 붉은색 바탕에 꽃잎무늬를 수놓은 단령포에 가죽 허리띠를 둘렀다. 박판(拍板)과 유사한 물체가 든 갈색 비단주머니를 들었다. 두번째 악사는 짙은 푸른색 바탕에 꽃잎무늬가 그려진 단령포를 입었다. 공후(箜篌)로 보이는 물체가 담긴 비단 주머니를 들었다. 마지막 악사는 흰색 바탕에 꽃잎무늬가 있는 단령포를 입고서 비파로 보이는 악기가 담긴 갈색 비단 주머니를 들고 있다.

첫번째 내시는 붉은색 바탕에 붉은색 꽃무늬가 장식된 단령포, 두번째 내시는 푸른색 바탕에 꽃잎무늬로 장식된 단령포, 세 번째 내시는 흰색 바탕에 꽃잎무늬가 장식된 단령포를 입고 모두 가죽 허리띠를 둘렀다.

북벽에는 두 명의 시종이 있으며 서쪽을 향하고 있다. 두 명 모두 복두를 썼다. 서쪽의 시종은 황색 바탕에 꽃잎무늬를 수놓은 단령포, 동쪽의 시종은 자색 바탕에 꽃잎무늬를 수놓은 단령포를 입었다. 서쪽 시종은 왼쪽 어깨에 활통을 매고 등 뒤에 활을 댔으며, 쌍두(雙頭)의 지팡이과 유사한 물건을 들고 있다. 동쪽의 시종은 일산(日傘) 같은 물건을 들고 있다. 왼쪽에 찬 화살통에 달리는 사슴 형상이 그려져 있다.

중국 흑룡강성(黑龍江省) 영안현(寧安縣) 삼령둔(三靈屯) 2호묘는 남향의 고분으로 현무암으로 축조되었다. 묘실의 크기는 길이 3.9m, 너비, 3.3m, 높이 2.45m이다. 3층의 말각조정 천장이다. 정효공주묘와 유사한 인물화가 벽면에 있었는데 많이 박락되었다. 동벽 4명, 서벽 4명, 북벽 3명, 연도에 2명, 묘도에 2명 등 15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었다.

2004년 9월 함경북도 화대군 금성리에서 발견된 발해(698~926) 벽화고분은 석실묘로서 길이 12m, 너비 8.5m, 높이 0.5m 정도의 남향 고분이다. 묘실 전체에 모두 벽화가 있었으나 현재는 북쪽 벽 하단에만 벽화가 남았다. 연화 위의 신선도와 각반을 차고 검은 신발을 신은 인물 그림이 남아있다. 대략 8-9세기로 편년된다. 북한에서 처음 발견된 발해 벽화고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발해 벽화고분에 대한 선행연구는 발해 고분의 구조, 부장품을 중심으로 연구하거나, 발해의 고분벽화를 개관하고 이를 발해의 역사에 비추어 발해문화의 성격을 살피기도 하고, 벽화에 나타난 발해의 복식을 중심으로 당과 일본의 복식과의 관계를 연구하거나,

정효공주묘의 시위도를 중심으로 고구려와 중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고찰한 연구가 있다.<sup>1</sup>

정효공주묘의 인물상의 형식과 복식은 당의 인물상을 많이 따르고 있으나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정효공주묘의 벽화의 구성은 이전의 고구려나 동시기의 당의 벽화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삼릉둔벽화묘의 천장의 장식문양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구려의 순수장식문양고분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해 벽화의 인물상의 특징이 기존의 당 벽화를 따르고 있으면서도 묘실 안에서의 벽화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발해 벽화고분과 당 벽화고분의 구조적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인물상 구성면에서 보다 유사하면서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은 당의 벽화고분의 석곽 선각인물화와 비교하고자 한다. 또한 발해 벽화고분의 인물상과 같이 입상(또는 좌상)의 인물상을 제사유적 앞에 일렬로 세우는 관습을 가진 몽골의 동시기의 돌궐의 제사유적지의 인물상과도 비교하고자 한다.

발해의 정효공주묘는 장방형의 묘실에 당나라 벽화고분에 비하여 그리 길지 않은 묘도를 갖고 있다. 고구려 벽화고분과 중국 북조 벽화고분의 발달을 비교하면 중국의 북조 벽화고분은 지하로 깊이 내려가는 긴 묘도와 천장, 과동의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청룡과 백호의 사신을 묘도로 끌어내고 천장, 과동의 아래에 무사, 시종 등의 인물을 채워 넣고, 묘실 안에는 입상의 인물상들을 그려 넣게 된다. 그러나 고구려 벽화고분은 초기의 다실묘에서 후기의 단실묘로 변화하면서 벽화의 구성은 단순해질 수 밖에 없게 되며 벽면에는 사신을 그려 넣고, 단조로워진 벽화의 구성을 대신 사신의 배경을 이루는 바탕면의 화려한 장식문양이나(오회분 4, 5호묘, 통구 사신총), 말각조정 천장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천인과 비천, 신수들(강서대묘)로 채우게 된다.

따라서 당의 벽화고분의 인물상의 표현과 구성은 구조적 특징의 차이에 따라 발해 벽화고분과 차이가 난다. 하지만 당의 벽화고분의 묘실 안에 배치된 방형의 평면을 가진 가옥형 석곽의 외면에 새겨진 선각인물화와 비교하면 보다 유사한 점들이 발견된다.

---

<sup>1</sup> 송기호, 『발해 사회문화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전호태, 「渤海의 고분벽화와 발해문화」, 『高句麗研究』 第6輯, 1999. 정병모, 「渤海 貞孝公主壁畫 侍衛圖의 研究」, 『강좌미술사』 14호, 1999. 김민지, 『渤海服飾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당의 석곽 인물화는 그 사례가 많지는 않다. 당나라의 석관곽은 약 20구가 李壽, 鄭仁泰, 韋貴妃, 燕妃, 房陵長公主, 李晦, 懿德太子, 永泰公主, 章懷太子, 金鄉縣主, 阿史那懷道, 李憲 등의 고분에서 발견되었다.<sup>2</sup> 석곽 선각화의 사례는 수대의 이수묘(630)가 가장 초기의 것으로 여겨진다. 잘 알려진 영태공주묘(706), 의덕태자묘(706), 장회태자묘(711)는 8세기 초의 석곽들이고 정효공주묘와 시기적으로 가까운 사례는 이현묘(741)의 석곽이 있다. 이수묘는 중국 북조와 수대의 전통을 따라 화상석관도 인물을 여러 단으로 나눠 가득 채워 복잡한 구성을 보인다. 이수의 석곽인물화는 북조 벽화고분의 전통이 이어져 복잡한 인물구성을 보이나, 8세기초의 영태공주묘 인물상에 오면 석곽의 인물화가 담긴 평면이 하나의 그림틀 또는 병풍화처럼 변화하여 여러 폭의 병풍화를 펼쳐 놓은 듯이 정돈되며 각각의 병풍 틀 안에 1인 또는 2인의 인물이 입상의 형태로 새겨진다.

8세기 중의 이현묘의 석곽은 바닥면의 전체 길이 3.96m, 너비 2.06m, 높이 27-28cm이다. 벽은 10개의 방형 석주와 10개의 장방형 석판으로 연결해 구성하였다. 동벽 정중앙에 문을 새겼다.<sup>3</sup> 병풍틀 안에 하나의 인물만 새겨지며 들고 있는 기물도 정효공주묘의 인물상들과 유사한 것들이 보인다.

이러한 방형 석곽은 당대 이전에는 산서 대동의 북위의 송조조묘(477), 대동 남교 지가보 부근의 세 기의 고분에서 나온 석곽(484-489), 북주 사군묘(580), 수대 우흥묘(592), 수대 이정훈묘(608) 등이 있다.<sup>4</sup>

정효공주묘의 인물의 구성은 이전에는 당 벽화고분과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동시기의 이현묘 석곽 선각화와 비교하면 묘실이라는 가장 내밀한 공간에서 묘주를 모시는 인물들로 구성된 석곽 인물화와 맥을 같이하는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정효공주묘가 묘탑장이라는 점에서는 중국의 탑의 지궁의 장식과도 비교가 가능하다. 현종이 발원한 경산사의 지궁에는 벽면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악사와 제석천, 범천 등 입상의 인물상으로 구성된 것이 정효공주묘 벽화의 구성과 비교할 만 하다.

---

<sup>2</sup> 程義, 『關中地區唐代墓葬研究』, 文物出版社, 2012, pp.95-100.

<sup>3</sup> 陝西省考古研究所, 『唐李憲墓發掘報告』, 科學出版社, 2005, pp.161-223.

<sup>4</sup> 程義, 『關中地區唐代墓葬研究』, 文物出版社, 2012, pp.100-103.

선행연구에서도 정효공주 무덤이 중국의 묘탑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정효공주 무덤과 구조가 유사한 영광탑의 구조가 경산사탑의 사리안치실과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sup>5</sup> 경산사 지공의 양 벽의 5명의 나한 또는 부처 제자 10인의 구성도 정효공주묘 벽화구성과 유사하다. 당대 황실 발원 불탑의 사리안치실은 황릉의 구조와 같이 용도, 석문, 그리고 궁실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축조재료도 대체로 당대 무덤의 축조 재료였던 벽돌을 쌓아서 축조하였다.

돌궐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화장을 한 후에 매장을 하였는데 사각형의 판석으로 네 면을 둘러치고 내부에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였다. 판석으로 세운 묘의 앞에는 석인상을 세워서 영역을 표시하였다. 대개 한 명 또는 두 명의 인물조각상이 묘 앞에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대개 돌궐 특유의 잔을 가슴 앞에 들고 있고 첩첩대, 칼 등을 차고서 고분 앞에 서있는데 묘주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사한 돌궐식 용기는 몽골 호쇼차이담 빌게 카간 제사유적지 출토 금은기, 몽골 불간 바얀노르 벽화고분 출토 금기, 섬서 서안 하가촌 출토 은기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돌궐의 인물조각으로 유명한 예는 빌게 카간과 쉐 테긴 제사유적지이다. 빌게 카간의 제사유적지에서는 여러 개의 인물 입상과 좌상 조각이 나왔다.<sup>6</sup> 복원한 그림을 보면 이수와 귀부를 갖춘 비석 뒤로 약 10명의 인물좌상, 입상이 두 줄로 도열하여 서 있다. 제사유적지에서는 기마인물이 그려진 벽화편도 나와 제사사당에 묘주의 생전 전투모습을 그렸다는 기록과 부합한다. 빌게 카간과 쉐 테긴의 제사유적은 당시 중국에서 비문에 새길 묘지를 써서 보내고 중국의 장인을 보내어 고분을 꾸몄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나 동시기 중국의 당의 황제릉이나 배장묘의 석조 조각들과 비교할 때에 구성면에서 차이가 있다.

몽골 불간 바얀노르에서 발견된 돌궐시대 벽화고분은 대략 7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데 몽골에서 처음 발견된 돌궐시대 고분벽화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묘도의 벽화는 고구려와 당 벽화고분의 주제인 청룡, 백호와 인물화로 구성되었으며 당의 북조-당의 고분벽화에 보이는 문루도, 연화보주도, 괴수도도 천정과 과동에 그려졌다. 묘실의 병풍화와 수하인물도의 형식으로 그린 인물상들과 묘도의 당 벽화고분 인물의 복식을

---

<sup>5</sup> 주경미, 『중국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2003. 한정인, 『渤海 眞孝公主墓 研究』, 숙명여자 대학교 석사논문, 2010.

<sup>6</sup> 정재훈, 『돌궐 유목제국사 552-745』, 사계절, pp. 508-548.

갖춘 8명의 인물상은 당의 벽화와는 약간 다른 지역적인 특색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발해의 정효공주묘의 12인의 인물상을 통일신라와 비교하여 12지와의 연관성을 언급한 선행연구가 있는데 통일신라 능묘의 판석에 새긴 12지신상 부조나 환조 조각상, 고려시대 벽화고분의 12지신상과도 연결될 수 있는 인물상 구성이다.

### Ⅲ. 발해 고분벽화의 장식문양의 특징 비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발해의 삼릉둔벽화묘의 천장의 장식문양을 중국에서는 보이지않는 것으로 발해의 독특한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실제 당의 벽화고분과 비교하면 묘도, 천정, 과동, 묘실로 이루어진 당의 벽화고분에서 천장부분이 장식된 예는 묘도 정도이고 고분 안으로 들어갈수록 천장 부분에는 장식이 가해지지 않고 묘실 안의 경우 일상, 월상 정도의 단순한 장식만 보인다. 묘도의 천장 장식도 영태공주나 의덕태자, 장회태자묘의 경우 터널형의 천장에 사각형의 구획을 나누고 그 안에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화문을 그려 넣어 삼릉둔벽화묘의 천장의 화려한 화문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전통을 이은 말각조정 형식을 가진 삼릉둔벽화묘의 천장구조나 말각조정외의 천장의 표면을 따라 연속화문을 장식한 예는 당의 벽화고분과는 확실히 다르다.

흥미로운 점은 삼릉둔벽화묘의 천장 장식문양과 유사한 것이 발해에서 먼 중국 감숙성의 돈황석굴 천장벽화와 몽골의 아르항가이에서 발견된 위구르시대 벽화고분에서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몽골의 호쇼차이담의 빌게 카간과 쉐 테긴 제사유적지의 석곽 부조의 원화문과도 유사하다.

돈황석굴의 초당의 제329호굴 천장과 성당시기의 제320호굴은 천장에 삼릉둔벽화묘와 유사한 원형의 화문을 가득 그려 넣어 장식을 하였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인 성당시기 직물에도 유사한 화문이 나타나며 정창원 소장의 당대의 화전에도 유사한 문양이 새겨졌다.

특히 독특한 원화문의 비교 사례는 몽골과 중국이 공동발굴한 아르항가이의 흥디이 허러이에서 발견된 위구르시대의 벽화고분의 장식문양일 것이다. 몽골 불간 바얀누르에서 돌궐시대 벽화고분이 발견되기 이전에 위구르시대의 벽화고분으로 발견된

이 고분은 원형의 전축분이며 그림을 그릴 벽면에만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커다란 원형의 화문을 벽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그려 넣었다.

발해 벽화고분의 인물상의 형식이나 복식이 당의 벽화묘를 따르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장식문양을 하나의 중심주제처럼 여겨 천장을 가득 장식한 발해 벽화고분의 구성 방법은 확실히 고구려의 벽화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이러한 벽화 구성방법이 돈황 석굴 벽화나 위구르시대 몽골의 벽화고분과 공유된다는 점은 초원로를 통해서든, 오아시스로를 통해서든, 중국의 북방지역을 따라 오래전부터 흐르던 북방기류의 결과로 보인다. 고구려 벽화고분에 많이 사용된 말각조정이 돈황 석굴 벽화의 초기인 북량부터 북조시대 동안 석굴 천장 장식으로 자주 출현한다는 점도 이미 이른 시기부터 해당지역 간에 공통적인 문화의 교류가 이어지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말각조정 천장 형식은 고구려의 동시기인 북조 벽화고분이나 남조 화상전고분에는 거의 출현하지 않는다.

유사한 장식문양은 또한 몽골의 돌궐시대 제사 유적지의 석곽의 표면에 새겨진 원화문에서도 발견된다. 호쇼차이담 박물관에 전시된 빌게 카간의 제사유적의 석곽을 보면 하나의 석판에 두 개의 원형 화문을 나란히 새기거나 두 마리의 주작이 마주 본 형상을 새겼다.

감숙의 불교석굴 벽화와 발해 고분벽화가 유사한 장식문양을 공유하는 것은 발해 정효공주묘와 삼릉둔벽화묘가 묘탑장이며 당나라에 묘탑이 주로 불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상징성을 가진 건축물의 장엄에 공통적인 장식문양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고분미술과 불교미술 간의 교류를 짐작하게 한다.

정효공주묘의 내시와 악사의 옷에 장식문양이 세밀하게 장식된 것은 당의 벽화고분의 인물상에는 별로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복식에 반복적으로 그려 넣은 작은 장식문양은 신강 키질석굴의 공양인상, 베제클릭석굴의 위구르 공양인상, 소그드의 아프라시압이나 판지켄트 벽화의 귀족인물상에 유사한 작은 장식문양이 자주 사용되어 비교된다.

#### IV. 맺음말

발해의 벽화고분은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으나 고구려 벽화고분과 통일신라



능묘조각과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고 동시기 중국의 당나라 벽화고분과 석곽 조각 및 몽골의 돌궐시대의 제사유적지의 인물조각과 석곽조각과 위구르시대의 벽화고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발해 벽화고분은 벽화구성상 당묘 벽화보다는 당묘 석곽 선각화의 구성과 유사하다. 천장의 장식문양의 특징은 고구려에서 많이 사용하던 장식문양도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둔황석굴 천장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양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앙아시아와의 교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교류는 발해의 다양한 대외교통로를 통해서 가능했을 것이다.

둔황석굴의 천장 장식 벽화와 장식문양과 배치면에서 유사하고 몽골에서 발견된 위구르벽화묘와도 유사한 반면, 당나라의 벽화의 천장 장식 구성과 장식문양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발해가 당으로부터 일정한 문화적 자극을 받아들이면서도 초원로와 중앙아시아를 통해서도 북방기류를 따른 교류를 가진 결과로 생각된다. 유사한 장식문양이 몽골에서 발견된 돌궐시대 제사유적의 석곽 조각과 위구르 시대 벽화묘에서 발견된다는 점은 이러한 문화의 통로가 초원로를 통하여도 열려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발해는 중국의 당과 일본만이 아니라 돌궐과 회흘과 밀접한 대외관계를 가졌으며, 발해의 대외교류로 가운데 담비길은 북방민족과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또한 회흘과의 경제 문화교류에 소그드상인의 역할이 주목된다. 발해에서 나오는 소그드계의 유물, 소그드계 인물의 활동, 둔황 문서에 언급된 발해에 대한 기록 등 발해와 중앙아시아 간의 관계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sup>7</sup>

본 논문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고구려 벽화고분과 중국 당의 벽화고분의 비교에 그친 데서 더 나아가 당의 벽화고분의 묘실 내에 안치된 석곽의 인물 선각화의 구성과 비교하여 구성상의 유사점을 찾았다. 또한 동시기의 돌궐과 위구르의 제사유적의 석조조각과 벽화와 비교하여 고찰대상을 중국고분미술에서 벗어나 북방민족 간에 흐른 북방기류의 표현으로 보고 고분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강과 감숙의 불교석굴 벽화와 위구르 시대 중앙아시아 석굴벽화의 공양인상과도 비교하여 북방지역을 따라 흐른 고분미술과 불교미술의 흐름 안에서 발해의 벽화고분의 위치를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

<sup>7</sup> 정병준, 권은주 외, 『발해의 대외관계사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벽화고분 만이 아니라 발해 고분에 담긴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은 2004~2005년 길림성 화룡시 용해촌 용두산 고분군에서 발견된 대형석실묘인 3대 문왕(재위 737~793년)의 부인인 효의황후묘(M12)와 9대 간왕(簡王) (재위 817~818년)의 부인인 순목황후묘(M3)에서 출토된 묘지명과 금제 장신구과 관식 등 새로운 발굴자료의 탐구와 더불어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고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8</sup>

---

<sup>8</sup>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延邊朝鮮族自治州文物管理委員會, 「吉林和龍市龍海渤海王室墓葬發掘간보」, 『考古』, 2009年 第6期. 송기호, 「용해구역 고분 발굴에서 드러난 발해국의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38, 2010.11, pp. 137-153.